

제 30회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 및 신기술 발명전
인테리아 부문 은상 수상자 조현성군 만나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 오면서 버스 차창밖으로 간판 광고를 보고 많이 봤어요.”
여의도에서 서울메우터까지 오는 길이 힘들지 않았다는 질문에 조현성(정보산업공·전자정보공학 02)군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엔 열린 제 30회 스위스제네바 국제발명품 및 신기술 발명전에서 인테리아 부문 은상 수상자, 전자정보공학부에 재학중인 새내기였다.
“고 1때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스태นด์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 때 천장에 있는 등등에 스태นด์를 추가해보면 어떻겠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된 이번 작품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등등의 구조를 잘 변형시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길이를 마음대로 늘일 수 있고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전력을 쓰는 유닛에도 많이 이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조군은 작품에 대한 설명까지 상세하게 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이 자신감있고 활발한

성격이라고 단정히 얘기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감을 갖기까지는 고 2까지 걸렸다.
“어렸을 때는 꼭 발명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조립이나 만들거를 많이 좋아했지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때까지 과학 대회에 많이 참가했지만 입상에 실패를 하고 계속 낙담을 하다가 중 3때 과학상자 조립대회에서 전국대회로 입상한 후로 제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국제발명품전에서 상을 받는 등 보통 대학생과는 다른 조군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질문에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경험? 보통 경험에 중요하냐는 말은 흔히 나이트 어론들이 주로 하는 말인데? 하지만, 조군이 말하는 경험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다. 음료를 마시는 것, 걸기 걸기 하는 상용차 보는 것, 시소한 것까지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자신의 특별한 일만을 ‘경험’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조군의 생각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상용차에 대해 경험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을까?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자신있어하는 인테리아 분야와 전공 분야를 접목시켜보려고. 그래서 좋은 상용차를 만들고, 세계에 판매 할 겁니다.” 이렇듯 그의 미래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매순간 사소한 것까지 채워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편지를 배우려고 하는 조현성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게 취업에만 매달리는 학생들과 대조되는 면을 볼 수 있었다.

김정남 수습기자 bluean83@hanmail.net

양배움터 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

농민학생연대활동(농학이)은 오는 29일(토)부터 7월 8일(월)까지 정라비도 김재에서 서울메우터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다. 약 10일간 진행될 이번 농학이는 농촌의 일상을 돕고 농민과 학생이 농촌과 대학의 문제를 공유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농학이 기간의 교양내용으로는 △2000년 쌀 수입 반대 △6·15 공동선언 이행·한글날 이적 규정 철폐 등이며 농민과 학생의 교류차원에서 여성농민반, 청장년반, 아동반, 청소년반 등의 분반활동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메우터 부총학생회장 강길수(통상·베트남어 96)군은 “농학을 일방적인 봉사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농민과 학생이 어울리며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배움터에서는 오는 27일(금)부터 7월 7일(일)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농학을 진행

한다. 신청은 10일(월)부터 받으며 각 과의 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장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농학이는 27일 이북수련원에서 열리는 농학이교과를 시작으로 2개 만에 나눠서 진행되며 6월(토)에는 WTO수입개방반대 2000농민 문화제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앙청학위원회 임경수(통상·폴란드어 96)군은 “올해 가장 중요한 농민문제인 WTO수입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농동의 가치를 느끼며, 함께 가는 학생들 간의 친목도 다질 수 있는 기회이다. 농학이 ‘농촌봉사활동’이 아닌 ‘농민학생연대활동’인 만큼 많이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돌아와서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농학이에 6월 29일(일) 참가하는 학생은 사회봉사활동으로 2학점이 인정된다.

서울, 외대 연극회 신입생 워크숍

지난 4일(월)부터 8일(토)까지 외대연극회에서 주최한 제 30회 신입생 워크숍 공연 ‘연극 무도 자해공감단 자살’이 인문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입생이 주로 배역을 맡아 2개월 동안 준비한 이번 공연은 월드급 기교와 맞물려 관객 수가 적었지만, 사실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공연은 자해공감단의 자살소와 공감단 구성원들이 각자 삶의 주제상에 의미를 갖고 생각

하는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에서 연출을 맡은 최해원(통상·일본어 97)군은 “연기는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경험이 적은 1학년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경험할 수 없는 것과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었기 격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해원(사상·사범과 77)씨는 “구성과 내용, 스토리 전개가 정당한 틀을 깨고 경쾌하게 피격되고 인상적이다. 하지만 관객수가 적은 것이 아쉽다”며 공연을 평가했다.

통일부장관 초청강연회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정세현 통일부장관 초청 강연회가 오는 11일(화) 오후 3시 서울메우터 교수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회는 이창희(외국학술연구센터 법학연구소 소장)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개회식 △개회사 △축사 △강연회 △질의·응답시간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

된다.
이번 행사는 법학 연구소가 산·관·학 협력을 전제하는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두 번째 실시하는 지방지사 초청강연회이다.
이번 강연회를 준비한 법학과 학과장 이창희 교수는 “이번 행사는 이번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상경대 노래패 ‘맥박’ 공연

지난 9일(수) 오후 6시 서울메우터 대학원 소극장에서 상경대 노래패 ‘맥박’ 공연이 열렸다.
‘시창 및 지휘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여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로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산을 두고 지휘를 내리는 장면, 유치원생들이 지휘할 안에서 이야기하는 장면 등 지휘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한 후, 정면에서의 의미 있는 노래를 통해 나타냈다.
공연 관람 후 전호수(사상·영어 02)장은 “전

체적인 내용연결이 매끄러워 좋았고, 연주를 다른 단체의 편을 빌리지 않고 ‘맥박’ 안에서 소화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일상 생활 속에서 의미있는 소재가 담긴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였다”라고 평가를 내렸다.
한편, 맥박 패장 김만규(상경·무예 01)군은 “소극장을 이룰까를 빌리지 못해 제대로 무대에서 연주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공연은 조영이나 음향의 타이밍이 잘 맞았 그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람객을 꼭 채우지 못해서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민혁당 사건 연루 이석기씨 연행

지난 9일 25일(토) 우리학교 중국어과 8학번인 이석기(42세)가 ‘민족민주혁명당’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사건은 99년 공안기판의 조작음모로 3차례에 걸쳐 10명을 구속시켰으며, 수많은 조작의혹과 고문까지 동반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행된 사람들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번 연행으로 “공안기관이 또다시 조작음모를 꾸미며 한때 ‘이석기’라는 극단적 선택과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행된 이석기는 현재 홍재동 대공본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민족민주혁명당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공안연방 자치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석기 연행된 당일부터 매일 홍재동 대공본사에서 석방투쟁을 벌이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행사

6·15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그날’ 사진전과 ‘영향한 통일’ 그림전시회가 조국통일당 민족연립(한민당) 남북본부, 통일연대 등 여러 통일운동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6·15공동선언 발표 후 통일을 위한 발자취를 그려보았다. ‘그날’ 사진전은 6월(토) 인사동 ‘남인사미술관’에서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다. 11일(화)까지 계속되는 이번 사진전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의 다양한 남북의 만남을 30여개의 단체들에서 제공받아 70여점의 사진에 생생한 기록들을 담아놓아 관람객에게 지난 2년을 회고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한편 9일(화)까지 열린 ‘영향한 통일’ 그림전에서는 ‘통일되면 어떤 행복한 모습과 만날 수 있는가’는 취지실현차로 통일연대 내의 미래, 설렘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전시됐다.

영어과 뮤지컬 공연

윤인배 영어과 영어과 영어과 뮤지컬 공연 FANTAGE의 제 2회 정기공연이 열렸다. 지난 7일(금) 재학생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지금까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공연해 오던 것과 달리 창작극인 ‘Mad for music’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 학회장 민정현(사상·영어 01)장은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기 위해 연출과 안무를 다 해왔던 것 같다. 중간중간 한 곡노래를 넣어 이해를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료구하기가 힘들고 음악, 조명, 의상 등 장단의 실력이 열악해 준비하는데 어려웠다”며 “열심히 준비해 온 부원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6월 월례 토론회

‘학벌없는 사회(www.wonkukd.org)’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의 공동 연구기획 6월 월례토론회가 오는 15일(토) 오후 3시에 성균관대 경원관 지하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비학 오디세이’의 ‘죽림과 상사리’의 저자 김준진씨가 ‘학벌사회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난 해부터 우리 사회의 학벌문제를 해소하고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매일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시고 그 이론적 대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월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용인, 취업 특강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 주최한 취업특강이 지난 7일(금) 정보산업관 315호에서 열렸다. 약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강연은 ‘취업은 움직이는 것이다’를 주제로 경제학과 겸임교수 이태희씨가 초빙됐다. 이와관련 취업정보센터 신현희 주임은 “학과에서도 취업특강을 꽤 정도 진행해 왔지만 “학내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동대회개최

서울메우터 전동대회대표회의(전동대회)가 오는 6월 12일(수) 오후 5시 30분에 대학원 411호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신상규가 리 가인준 △윤아리조서단 결과 △노지희의 비 정상 보고 △내대동 평가 △여름농학 일일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동아리연합회장인 이화준(노숙대·정치외교 96)군은 “이번에는 교비 50만원이 지급되어 도장을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쓰고도 버리시겠습니까?

- 일고로 찾아가세요 -

- 대 상 : 학보에 글 쓴 사람
- 장 소 : 서울메우터 학생회관 2층 신문사
- 연락처 : 02-961-4152 / 031-330-4112

문화캘린더

세월	제목	매	곳	내용
서울	세계경	6월 11일(토)	대학원 소극장(600)	창작극 발표회 오후 6시
학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서	~6월 23일(일)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이후재 무대연 4년 기념공연 회, 수, 목 오후 7시 30분 / 금, 토 4시, 7시 30분 / 일 4시 (월요일 공연없음)
목	나트 두이토와 스페인 국립무용단 대항공연	6월 21일(금) ~23일(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21일-오후 7시 30분 22일-4시 반, 7시 반 23일-4시 (02-560-130)

서울메우터

구분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월	오전 8시~10시 (W1,3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화	오전 8시~10시 (W1,3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수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목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금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용인메우터

구분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월	오전 8시~10시 (W1,3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화	오전 8시~10시 (W1,3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수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목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금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점심 12시~1시 (W1,500)



지자체 선거 신문보도 중간평가

부족한 보도량에 대선의 전초전으로 전락한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열전의 현장을 가다-경향〉
 〈6.13 지방선거 누가 뛰나-조선〉〈6.13 지방선거
 누가 뛰고 있나-대한매일〉〈6.13 현장-한겨레〉
 〈6.13 지방선거 열전의 현장-동아〉 등 자치단

변화 외면하는 언론

이번 선거는 사상 최초로 1인2표 정당명부식

경마식 보도와 네거티브 보도
- 넘지 못할 벽인가?

현재해야 할 언론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성없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킨다면 그 관행적으로 국민들을 질타하는데서 끝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무관심과 정치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티브보도보다는 깨끗한 선거운동을 해 나가는 후보를 부각시킨다면 공명선거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를 집중 조명하며 선거감시운동을 적극

적으로 펼쳐가는 것이 국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공정선거정착을 앞당길 것이다.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지역 문화정책 확립 시급

6·13 선거와 지자체

문화정책 과제

**우스꽝스런 전통의 냄새만
풍기는 지역문화정책**
"지방자치 속의 문화정책이 될 것인가? 지방
자치의 문화에 대한 정책이 될 것인가?" 기조

광주 금남로에는 누드조 

광주정신과는 상관없는 형이상학적인 조각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윤만식, 예술가)

상인들의 노골적인 상업행위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최재우, 전국민족극한마당 집행위원장)

이러한 무분별한 지역문화정책에 대해 손동혁(인천 민예총 사무국장)씨의 경우 인천문화의 현안과 함께 '인천시민의 힘'에서 제기한 6.13지방선거 문화공약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에 맞는 지역 문화인프라 구축
"문화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문예인수가 2500명, 미등록자도 약 2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 지역들의 결론적인 대안인 막강한 인력과 인프라 가진 중앙임에도

실제 문화정책에서 엄청난 허와 실을 가진 '서울지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서울특별시에는 그야말로 특별한 곳입니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살맛나는 문화도시이기보다는 오히려 경쟁과 변화만을 쫓

는 도시일 뿐입니다. 나라의 중심임에도 중심 답지 못한 문화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도시로의 예산확보가 시급합니다. 세종로의 문화지구 조성, 용산 미군기지 반환, 4대문 복원 등과 함께 도시계획 전반에 '문화'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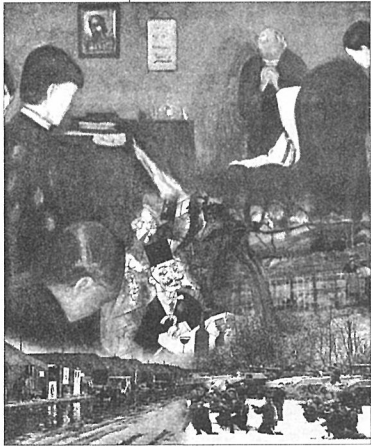
이 뿐 아니라 충북, 부천, 부산, 강원 지역 등 각 지역별로 이번 6·13과 관련한 문화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이룰기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날 토론자들은 특히 선거와 관련 있는 각 후보진영이 문화단체가 제기하는 문화정책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도출할 것인지에 합의의 타격을 피했다. 이번 포럼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많은 상황에서 각 지역별 현장의 목소리들을 정책적인 입장에서 다룬다. 게다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제4기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이전) 특별반형 -	등록금 차액 환불안내	제5기 영어체험캠프 5주합숙 영어입증과정	Unique & Best 외국어연수원생 모집 - 20주 집중영어연수과정 -																																																																																																																																																		
1. 모집 대상 및 인원 가. 전문상담교사 8명 과정 : 10명 나. 전문상담교사 4명 과정 : 50명 2. 지원자격 가. 원생의 학력(학점) : 중등 2년 전교과 이과전과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에 있는 교육전문직 3. 전형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 4. 제출서류 가. 경력면허 (연구개발직 연구개발직에 연구개발 경력에 준하는 소관 사항) : 1부 나. 경력 증명서 : 1부 다. 경력 산정서 (연구개발직 100%와 산정대상 10%) : 1부 라. 경력직 직보 : 1부 마. 경력 및 경력면허 : 1부 바. 경력면 (소속 연구개발직 관련 연수수료서 제출 - 경력에 관한 증명서는 4부) : 1부 사. 경력 산정서 : 3부 5. 면접 일정 가. 면접 1차 및 2차 : 2002. 6. 19(월) 6. 19(화) 나. 1차 :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 13시 ~ 16시 14:00 ~ 21:00 다. 2차 :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 13시 ~ 14:00 라. 합격자 발표 : 2002. 7. 5(수) 11:00 ※ 학비 : 교양은 100만원(대학비 제외)에 대한 기간에 대한 연수비용 100만원(대학비 제외) ※ 학비 : 전문상담교사 8명 과정의 경우 100만원(대학비 제외)에 대한 기간에 대한 연수비용 100만원(대학비 제외) ※ 학비 : 전문상담교사 4명 과정의 경우 100만원(대학비 제외)에 대한 기간에 대한 연수비용 100만원(대학비 제외) ※ 학비 : 전문상담교사 4명 과정의 경우 100만원(대학비 제외)에 대한 기간에 대한 연수비용 100만원(대학비 제외) http://www.hufs.ac.kr	2002학년도 등록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미 납부하신 등록금과 확정된 등록금과의 차액을 아래의 같이 학부모양의 통장 계좌로 환불(지급)하오니 환불신청(인탁) 일일 절차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환불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http://www.hufs.ac.kr)에서 학부모양 영문로 입력 (자세한 입학사정관 학교홈페이지 등록금 차액 환불안내 참조) 2. 환불신청(한도) 및 납입일자 : 2002. 6. 3(월) ~ 2002. 6. 15(토) ※ 학부모양 입학신청서 입력 우선 순위는 부, 모의 순. 부, 모 모두 6개 시는 타계하신 본 재학생들을 통사무소식에 발급 받아 별도 제출용 기타 가족 소액으로 입력 (재학생들 제출서 : 서울특별시 재무지 관리과, 용인광역시 송파구 관리과) 3. 환불액 : 인문계(30,000원), 이과계(45,000원), 공학계(40,000원) 다만, ① 환불대상 제외자 : 전액장학생, 보충장학생, 왕복학생(등록금유지자), 분할납부 미납자 ② 전액장학생이 아닌 등록금의 일일정액(수, 우, 학, 우, 입, 학, 고, 사, 국) 장학금의 경우와 ③ 기(기)상(상)등(등)지(복수)정(정)지(147)기 등 등록금 2/3 납부자는 환불금액이 달라짐. 4. 환불일자 : 2002년 7월 중순경 (인문계 학부모양 계좌로 입금예정) 5. 참고사항 : 학생본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에 불가하오니 반드시 학부모양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학생본인 : 재무지 관리과 (961-4043) 용인캠퍼스 : 송파구 송파구 (961-330-4043)	1. 연수기간 : 2002. 7. 1(월) ~ 8. 3(토) / 5주 합숙 2. 연수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용인캠퍼스) 3. 모집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4. 모집인원 : 120명(선착순 마감) 5. 모집기간 : 2002. 6. 10(월) 09:30 ~ 6. 15(수) 17:00까지 6. 참 가 비 : 150만원(숙식, 교재, 현장학습 등 재원(장비 포함)) 7. 문의처 : 011-330-0103 ~ 4(교무과), 4007 ~ 8(연수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eogro.hufs.ac.kr/hoc 8. 영어체험캠프 주간 일정 <table> <tr> <th>구</th><th>분</th><th>시</th><th>화</th><th>수</th><th>목</th><th>금</th><th>토</th></tr> <tr> <td>07:30-08:30</td><td colspan="7">기상, 아침운동</td></tr> <tr> <td>08:30-09:30</td><td colspan="7">입학식</td></tr> <tr> <td>09:30-10:30</td><td colspan="5">영어만들기와 영어듣기</td><td colspan="2" rowspan="3">주말특별 프로그램</td></tr> <tr> <td>11:00-12:30</td><td colspan="7">영어만들기과 영어듣기</td></tr> <tr> <td>12:30-13:30</td><td colspan="7">점심식사와 휴식</td></tr> <tr> <td>13:30-15:20</td><td colspan="6">영어수업 I (회화, 관용, 관용, 언어습득 등)</td><td rowspan="3">기타주 일일 프로그램 있음</td></tr> <tr> <td>15:30-17:20</td><td colspan="7">영어수업 II (회화, 관용, 관용, 언어습득 등)</td></tr> <tr> <td>17:00-19:00</td><td colspan="7">자습시간과 휴식</td></tr> <tr> <td>19:00-20:30</td><td>이전 특별활동</td><td>독서/토론</td><td>이전 특별활동</td><td>독서/토론</td><td>독서/토론</td><td>독서/토론</td><td>자습시간과 단체활동</td></tr> <tr> <td>22:00</td><td colspan="7">취침</td></tr> </table> ※ 참가 일정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구	분	시	화	수	목	금	토	07:30-08:30	기상, 아침운동							08:30-09:30	입학식							09:30-10:30	영어만들기와 영어듣기					주말특별 프로그램		11:00-12:30	영어만들기과 영어듣기							12:30-13:30	점심식사와 휴식							13:30-15:20	영어수업 I (회화, 관용, 관용, 언어습득 등)						기타주 일일 프로그램 있음	15:30-17:20	영어수업 II (회화, 관용, 관용, 언어습득 등)							17:00-19:00	자습시간과 휴식							19:00-20:30	이전 특별활동	독서/토론	이전 특별활동	독서/토론	독서/토론	독서/토론	자습시간과 단체활동	22:00	취침							모집과정 ◎ 20주 집중수업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어, 독일어, 스페인어, 노어 등 14개 외국어 교육기간 및 시간 <table> <tr> <th>과</th><th>정</th><th>목</th><th>교</th><th>과</th><th>수</th><th>업</th><th>시</th><th>간</th><th>수</th><th>업</th><th>요</th><th>일</th></tr> <tr> <td>◎</td><td>주</td><td>일</td><td>정</td><td>목</td><td>교<td>과<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td></td></tr> <tr> <td>◎</td><td>주</td><td>일</td><td>정</td><td>목</td><td>교<td>과<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td></td></tr> <tr> <td>◎</td><td>주</td><td>일</td><td>정</td><td>목</td><td>교<td>과<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주일정 : 2002. 7. 29 ~ 2002. 12. 13 09:30 ~ 16:30 월 ~ 금 (주 5일) 19:40 ~ 21:30 모집대상 ◎ 한자집수 : 2002년 6월 31일(월) ~ 2002년 6월 31일(일) 전까지 접수 (한자집수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노어 / 기타 등) ◎ 지원자격 : 1.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 입학시험 : 2002년 6월 31일(일) 10:00 ~ 12:00 ◎ 입학시험 : 2002년 6월 31일(일) 10:00 ~ 12:00 면접시험 시점(Level Test) ◎ 일시 및 장소 : 2002년 6월 29일(일), 오후 2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강당 ◎ 해당 언어별 Level Test (독어 - 한자집수), 기타 등 외국어 연수자에게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 2002년 6월 31일(일) 10:00 ~ 12:00 등록기간 및 장소 ◎ 2002년 6월 31일(일) ~ 2002년 6월 31일(일), 외국어연수원강당 및 계정은행 ◎ 계좌번호 : 132-10-0000154, 한국외국어대학교 (은행 영수증 발급) 기타 유의 ◎ 입학시험 : 2002년 6월 31일(일) 10:00 ~ 12:00, 외국어연수원강당 및 계정은행 ◎ 입학시험 : 2002년 6월 31일(일) 10:00 ~ 12:00, 외국어연수원강당 및 계정은행 ◎ 입학시험 : 2002년 6월 31일(일) 10:00 ~ 12:00, 외국어연수원강당 및 계정은행 ◎ 입학시험 : 2002년 6월 31일(일) 10:00 ~ 12:00, 외국어연수원강당 및 계정은행	과	정	목	교	과	수	업	시	간	수	업	요	일	◎	주	일	정	목	교 <td>과<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td>	과 <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	수 <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	업 <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	시 <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	간 <td>수<td>업<td>요<td>일</td></td></td></td>	수 <td>업<td>요<td>일</td></td></td>	업 <td>요<td>일</td></td>	요 <td>일</td>	일	◎	주	일	정	목	교 <td>과<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td>	과 <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	수 <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	업 <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	시 <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	간 <td>수<td>업<td>요<td>일</td></td></td></td>	수 <td>업<td>요<td>일</td></td></td>	업 <td>요<td>일</td></td>	요 <td>일</td>	일	◎	주	일	정	목	교 <td>과<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td>	과 <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	수 <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	업 <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	시 <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	간 <td>수<td>업<td>요<td>일</td></td></td></td>	수 <td>업<td>요<td>일</td></td></td>	업 <td>요<td>일</td></td>	요 <td>일</td>	일
구	분	시	화	수	목	금	토																																																																																																																																														
07:30-08:30	기상, 아침운동																																																																																																																																																				
08:30-09:30	입학식																																																																																																																																																				
09:30-10:30	영어만들기와 영어듣기					주말특별 프로그램																																																																																																																																															
11:00-12:30	영어만들기과 영어듣기																																																																																																																																																				
12:30-13:30	점심식사와 휴식																																																																																																																																																				
13:30-15:20	영어수업 I (회화, 관용, 관용, 언어습득 등)						기타주 일일 프로그램 있음																																																																																																																																														
15:30-17:20	영어수업 II (회화, 관용, 관용, 언어습득 등)																																																																																																																																																				
17:00-19:00	자습시간과 휴식																																																																																																																																																				
19:00-20:30	이전 특별활동	독서/토론	이전 특별활동	독서/토론	독서/토론	독서/토론	자습시간과 단체활동																																																																																																																																														
22:00	취침																																																																																																																																																				
과	정	목	교	과	수	업	시	간	수	업	요	일																																																																																																																																									
◎	주	일	정	목	교 <td>과<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td>	과 <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	수 <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	업 <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	시 <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	간 <td>수<td>업<td>요<td>일</td></td></td></td>	수 <td>업<td>요<td>일</td></td></td>	업 <td>요<td>일</td></td>	요 <td>일</td>	일																																																																																																																																							
◎	주	일	정	목	교 <td>과<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td>	과 <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	수 <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	업 <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	시 <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	간 <td>수<td>업<td>요<td>일</td></td></td></td>	수 <td>업<td>요<td>일</td></td></td>	업 <td>요<td>일</td></td>	요 <td>일</td>	일																																																																																																																																							
◎	주	일	정	목	교 <td>과<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td>	과 <td>수<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td>	수 <td>업<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td>	업 <td>시<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td>	시 <td>간<td>수<td>업<td>요<td>일</td></td></td></td></td>	간 <td>수<td>업<td>요<td>일</td></td></td></td>	수 <td>업<td>요<td>일</td></td></td>	업 <td>요<td>일</td></td>	요 <td>일</td>	일																																																																																																																																							

영화로 세상 읽기 (7) - 프랑스 : 막간극

‘막간극 ENTR’ ACTE (1924)’과 1920년대 프랑스



! ‘막간극’에 비친 1920년대 사회적 혼란과 인간성 상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제 이러한 표현은 너무나 진부해졌기 때문에, 그 당위성 여부에 대한 논쟁 또한 사족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 명제를 반증하기만 한다면, 영화는 현실의 정후를 보인다 정도도 안 보일 수 있다.

감독이 자신의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현실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다 해도, 작품에는 재차 당시 사회와 문화가 고스란히 스며들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영화에는 현실이 각인되어 있고, 그 혼란은 현실에 대한 정후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의 정후’는 크게 영화화 이전부터 영화의 서사구조, 그리고 주제나 스타일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극단적인 예로 D.W. 그리프의 영화는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듯이, 하지만 여기에도 현실의 정후는 담겨있으며, 부조리한 현실에 공격하기 위해, 부조리한 표현을 즐겨사용했던 다다이스트들의 작품에서도 현실의 정후는 그대로 보여진다.

이제 살펴볼까? 필름 클레르 (Ren Clair)의 ‘막간극’은 이러한 다다이즘을 대표하는 영화

중 한 편이다. 클레르의 ‘막간극’을 통해 1920년대 프랑스를 들여다 보자.

‘막간극’은 파란색인 이미지들이 몇 겹의 플롯 위에 충돌하는 듯이 구성된 작품이다. 그 조각난 이미지들을 본다면, 클레르가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 수 없이 교차되는 이미지 사이의 행위들은 부조리한 듯, 아무런 개연성도 가지지 못한 듯, 무질서하게 나열되어있다. 그렇지만 흩어진 퍼즐을 다시 재조합해 놓듯이 잘라진 이미지들을 유형별로 다시 분류하면, 두 개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게된다.

하나의 죽음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부분이다. 영구차와 조련제, 그리고 망치로 이어지는 죽음의 이미지들은 장례행렬이라는 내적으로 일관된 플롯을 전개하며, 이것이 영화의 주어포스를 이룬다. 그리고 일련의 장례행렬 행위 사이엔 ‘entr’acte에는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공장과 비행기, 그리고 클라코르트 모습,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수염난 남성 텔레비전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삽입되어 있다.

다 갖추어진 퍼즐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다. ‘막간극’은 점차 가속도가 붙으며

영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빠르게 편집되었다 문명화되어 가는 세계의 부조리함에 대해 저항하며, 부조리한 세계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은 1920년대 전 유럽에 만연되어있던 사회적 혼란과 인간성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영화의 제작되었던 1924년을 먼저 영화사적으로 바라보자.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영화의 기술적 측면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의 진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유럽에서는 표현의 측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독일에서는 표현주의가, 프랑스에서는 다다이즘과 아방가르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다이스트들과 아방가르드들은 실제의 유사한 현실의 재창조가 아닌, 상징적 현실의 창조를 꿈꿨다. 하지만 다다이즘과 아방가르드를 단지 영화사적 상황에만 묶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이 나타나기까지 보다 복잡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 세계는 1차 세계대전을 겪고난 직후였다.

세계대전이란까지 사람들은, ‘세계가 도덕을 향해 순항하는 배이며, 문명은 인간의 도덕을 실현하는 도구이고, 인간들은 인간성을 찾아가는 진화의

과정’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계대전은 이러한 인간의 믿음에 종지부를 찍어 만들었고, 지식인들에게 지루할 수 없는 잔인한 기억을 만들었다. 그 후 부조리한 세계에 반발하여 모인 이들이 바로 초현실주의로 이어질 다다이스트들이다. 이들은 부조리한 현실에 기생하는 모든 산물들, 그 중에서도 예술을 공격하기 위해, 부조리한 표현과 무의미한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을 통해 부조리가 아닌, 무정부적 상태가 아닌, 무의미한 세계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꿈꿨다.

클레르는 ‘막간극’을 통해, 문명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을 보여줌, 죽음을 회화시키고, 부조리한 세계를 보여준다.

아무런 맥락도, 논리적 인과성을 찾을 수 없는 이 영화에서도 현실의 정후는 보여지는 것이다. 그것은 한낱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비록 이러한 현실을 넘어 서고자 하는 날개짓이었다. 비록 이러한 날개짓이 이카루스의 날개짓에 불과했을 지라도...

김일송

(세인트세인트 / www.cinecites.com)

통신헌 칼럼 - 미국편

유계현 (독자 87, 민주 중앙일보 편집장, 현재 이현대학교 독자)

9·11, 부시는 알고 있었는가?

5월 중순이후 미국언론은 온통 9·11 사건의 뒷이야기로 떠돌았다. 민주당이 제기한 ‘부시 대통령에게 9·11 테러를 알지 못했는가’는 주장은 매우 실례스러운 공격이다. 5월 27일자 타임지도 밝혔지만 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폭발사고 이후 95년 파키스탄 출신의 중앙정보국(CIA) 비행기 공격계획, 96년 아프리카지역 미대사관 폭탄테러, 99년 12월 31일 LA 폭탄테러 기도, 2000년 대선에서 발생한 미 항공모함 폭탄공격 등등의 정황으로 미국 본토내의 테러공격을 이미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다. 지난해 7월이후 미 연방수사국(FBI)과 CIA의 수사, 정보기관과 백악관 보고내용 등에서도 비행기 납치, 폭탄테러, 수상한 이라크계 유학생의 미국내 비행학교 재학기록 등이 잡혀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급급한 것은 ‘테러’라는 9·11 테러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공제와 왜 지금 제기되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지난 5월 16일 미국 CBS의 뉴스전행자 앤 래터는 ‘9·11 사건 이후 지난 미국 언론에 행정부에 대한 중요하지만 핵심적이고 곤란한 질문을 스스로 자제했다’며 “올바른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나 적당히 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질문을 포기했다”는 미 언론계의 자기검열 사실을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월 이후 미국 현지 언론의 테러예측주와 부시행정부의 일방적인 부추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임시정부가 들어오고, 반테러전쟁이 시작된다 8

개월이 지났으며, 세계무역센터의 전경이 완전히 철거됐다. 하지만 테러 조사의 핵심인 빈 라덴의 체포는 고사하고, 아프리카의 탈레반 조직이 여전히 살아있고, 반미 국제연대조직인 알카에다 조직 붕괴의 증거도 없다. 게다가 이슬람교와 팔레스타인의 긴장이 격화해 중동 이슬람 무장단체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파키스탄과 인도의 정쟁이까지 고조돼 부시행정부의 위기에 처하려는 점점 의문시되고 있다.

‘백악관이 9·11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17일 부시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당위성적 정중공제’라고 반박하며 “왕궁에 의한 자살폭탄공격을 알았으면 사전에 대통령의 권한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정보기관이 테러공격의 많은 정황증거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과 공화당 정치자금 모금회 9월 11일 직전 본인의 사진을 \$150에 판매하고 있는 부시의 답변은 신뢰하는 이들은 믿지 않는다. 결국 민주당과 언론의 ‘부시의 9·11 사건 인지공제’와 맞서 “세로는 대규모 테러공격 가능성”을 발표하는 부시행정부와 공화당 중 누가 다들 잘못했는지 더 많은 표를 얻을지는 여전히 미국정계의 화제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재 직장을 잃은 가정과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일자리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클로키움 - 포르투갈 문화의 이해

포르투갈을 읽는 키워드 3F



파두(Fado), 파타마(Pátima), 푸블(Fuêla), 알파벳 F로 시작되는 이 세 단어는 흔히 포르투갈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전통 포르투갈 음악인 파두는 예술가, 성모 발현자인 파타마는 종교에서 그리고 축구는 스포츠 분야에서 모든 포르투갈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한 국가를 이끄는 정신적 에너지이며 감히 문화라 할 수 있겠다.

리타의 Fado에서 유래한 파두는 음악, 혹은 속마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파두는 포르투갈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두의 기원은 12세기 포르투갈의 음악사에서 기인하여 이후 알파벳, 기타 등의 아프리카 토착

음악과 브라질 원주민의 음악이 어우러져 오랜 시간동안 변화의 과정을 거쳐 19세기 이후 오늘날의 형태로 체계화되었다. 주로 국민 정서인 싸우두(Saudade, 그리움, 향수)와 사랑, 죽음과 시간 등을 주제로 택했으나 이후 정치 역사적 사실을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등, 생생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게 된다.

비교적 밝은 색채나 대량 생물을 노래하는 코임브라(Coimbra)파두는 대학의 음악가들이인 푸카(Fuêla)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기에 남자들이만 부를 수 있었으며, 아름다운 분위기의 리스본(Lisbon)파두는 오랜 항해자와 이민자의 정서로 인해 한층 더 많은 이민자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정경 한민족 영혼의 노래라 할 수 있다.

무려 여섯 번이나 성모의 발현이 있었던 파타마는 리스본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1차 세계대전과 오랜 가뭄으로 황폐해져 있던 1917년 5월 13일, 동네 코임브라 루아에, 프란체스카 그리고 자네타 앞 에 모습을 드러내신 성모께서는 목구멍

을 울릴 것과 죄인을 위한 희생, 러시아의 회개 등을 말씀하신 메시지를 내리셨다. 바로 국민 정서인 싸우두(Saudade, 그리움, 향수)와 사랑, 죽음과 시간 등을 주제로 택했으나 이후 정치 역사적 사실을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등, 생생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게 된다.

비교적 밝은 색채나 대량 생물을 노래하는 코임브라(Coimbra)파두는 대학의 음악가들이인 푸카(Fuêla)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기에 남자들이만 부를 수 있었으며, 아름다운 분위기의 리스본(Lisbon)파두는 오랜 항해자와 이민자의 정서로 인해 한층 더 많은 이민자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정경 한민족 영혼의 노래라 할 수 있다.

무려 여섯 번이나 성모의 발현이 있었던 파타마는 리스본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1차 세계대전과 오랜 가뭄으로 황폐해져 있던 1917년 5월 13일, 동네 코임브라 루아에, 프란체스카 그리고 자네타 앞 에 모습을 드러내신 성모께서는 목구멍

결과는 그들은 유럽인이란 모두 가지 않는 열광적인 분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화합만이 지친 삶의 회복력인 것이다. 월드컵에 참가해온 포르투갈 국민의 기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를 지배했던 선조들의 영광을 축구로 재현해 보고자하는 의도도 무시할 수 없으리라.

3월 1976년 군사혁명이 일어나기까지 40년간 지속되었던 살라자로(Salazar) 정권의 우익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이 그만큼 이 세 요소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 몇 가지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것이란 올바른 이해를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우리는 먼 나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태안과 바다의 나라 포르투갈은 다시 한 번 참한 파도를 헤치고 우뚝 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송원환

(포르투갈어교수)

컬처(Culture)
여성문화진흥기금 후원하는 '태평양 여대생'은 2002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을 실시한다.

여자가 행복해야 세상이 아름답다!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여자가 행복한 세상은
태평양이 컬처를 꽃피웁니다.

www.asiapacific.co.kr

제8회 컬처넷 선발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 주제** '한국의 여성복지 향상 방안'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복지 정책 제도 연구
 -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조직 내 여성복지의 개선 방안
 - 여성단체와 여성단체의 여성복지사업에 대한 영향
 - 직장내 남녀평등 조직문화의 정착과 실천 방안 고찰
 - 인권 국가의 여성복지정책과 기업의 역할
 - 사회적응 여성복지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
 - 이와 관련이 있는 기타 주제

참가대상 전국 각 대학 재학생인 여대생, 여대학생
응모기간 2002년 9월 1일 ~ 10월 31일

- 응모방법**
- 분량 : A4 용지 20매 이내
 - 제출서류 : 논문 원문 1부 및 사본 3부, 제출증명서 1부(2002년 8월말 기준)
 - 접수처 :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접수처 (주)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 문의처 :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접수처 (주)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심사기준 독창성, 논리성, 실용성, 주제부합성, 형식
심사방법 2002년 12월 중순, 개별통지

제출처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7가 175-2 신원빌딩 2층
재단법인 태평양문화재단 사무국 (주)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접수처

특정

- 수상자는 심사 일시에 의해
- 수상자는 재도 문화재단 심사(2회 3일)

기타

- 공모전은 다른 경쟁이나 논문지 발표되지 않아 함
- 공모전은 일제 시행하지 않음
- 수상은 문화 재단 재단법인 태평양문화재단에서 기증
- 문의처 : 재단법인 태평양문화재단 사무국 (02-749-2386, 02-709-3922)

태평양 장학문화재단 · 태평양

합산의 소리

신입생들 여름방학 때려잡기

2002월드컵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때가 었고 제 같은 또래를 깨워주고 일주일, 그렇게 바 라던 한국의 첫머리에서 이루어졌다. 신입생들 의 기본도 같은 것이다. 입시를 준비하고 수능을 으로 방학을 맞이하게 된다. 참 세월이 유수 (流水)와 같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내가 느끼던 대학에서의 '방학'이란 고등 학교 때까지의 '방학'과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다. 내 느낌엔, 학교와 부녀자의 간섭이 없 어지고 '공부'라는 일개의 목표가 아닌 다채로 고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게 대학에와서 그 수업까지의 방학의 차이였다. 방학이라는 오 리 두말의 신세대인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오 로지 자기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 이 오히려 방학을 어렵게만 보게 만든다. 시 간을 찾고 할 일은 없고, 무얼 할지 꾸물거 리며 앉고 누워 두 일리는 한 시간은 어느새 흘 러나간다. 결국 나 한 방학을 잘못 보았다 는 느꼈던 날에 걸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방학을, 그것도 대학에 서의 첫 방학을 보람지게 보낼 수 있을까? 영 어공부? 여행? 연수? 그냥 놀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잘 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 방학을 잘 보냈고 못 보냈 는 얼마나 자신이 능동적으로 그것을 했는 나 이다.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고 여행하고 연 수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어떤 것을 한번만 그것으로 이미 자기 것이 아니 다. 물론 하고 나면 다 좋은 경험이고 되고 남는 것 은 있었지만, 그렇다만 결국 다음에도 또 무엇 을 할지 찾아가 되고 다시 남들을 따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처음, 첫 방학이 중요 하다.

나는 신입생 때의 여름방학 전까지 참 바쁘 게 살아왔었다는 느꼈었다. 초, 중, 고등학교 별 생생함이 모두 생생한 선택할 일도, 길도 없이 너무나도 보람이 풍부한 인생이었다. 물론 참 못 살아왔다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재미없 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오면 많은 게 변할 줄 알았는데 난 너무 쉽게 적응해 버렸고 또 다 그 대학생활에도 평범한 일상이 됐다.

그리고 맞이한 첫 방학 너무나도 많은, 그러 나 할 것은 딱히 없는 시간에 난 빨리 개미가 오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부끄 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러곤 늦었지만 남은 방학 에는 후회 없이 그것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는 할 안 하했다. 그건 나만의 경우이기에 내 생애를 한이기에 선택해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찾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어 제 보던 너무 담담한 얘기지만 너무 담담하기 에 많이 놀라는 것 같다.

먼저 '지금'이 아니라, '1학년 여름 방학'에 야하면 다음엔 하기 힘든 것 들을 찾는 것이

다. 이렇게 해보면 오랫동안 어떤 방학 뿐 아 니라 이 이후의 방학과 더 나아가 대학생활의 계획이 잘 잡힌다.

물론 이 계획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확실한 동기부여도 되고 자라는 비전을 생각 해 보는 시간도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 바라는 건 너무 현실적 실질적인 것이 방학 때 해 야할 일로 딱히 없었으면 한다. 그보다는 많은 다양한 경험과 사람들 좋은 책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의견과 교양을 넓히고, 그러면서 커다란 꿈을 꾸는 것이 대학생의 그 리고 신입생들의 일과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아 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또 하나는 여행을 찾는 것이다. 비록 카레라 도 필름도 감독도 배우도 관객도 없지만 자신 의 눈이 카메라이고 자기가 필름이고 자기가 자신 스스로 감독 배우 관객이 되어 자신만의 영 화를 찍어 보는 것이다.

물론 평범하고 너무 뻔한 스토리의 영화는 재미없겠지만 다른 말로 현실에 너무 순응하는 것은 연가, 감독하는 자라도 보는 자라도 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사전을, 클라이막스를, 반 점을 만들어 조금은 비현실적인 재미있는 영 화를 만들어 내면 된다. 하지만, 장르는 물론이 라면 연이연 로맨틱 코미디만, 자신과 만 신사에 대한 실질적 언어를 중대하게 나가는 과정은 통일방안 합의 과정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통일방안에 대 한 비타협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통일방안의 목표와 지향을 분명히 한다 는 점에서 다를 수 없는 과제이다.

다음은 필자가 연방제 통일방안을 비판하면 서 제시한 몇 가지 논점에 관한 반론이다.

첫째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방안"은 무엇보다 먼저 양측에 합의한 제도로 수립되어야 한 다. 필자는 필자의 주장은 실득적이 아니라 제 체통과 조건의 미비로 인하여 정작 통일국 가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망각 미루어야 한 다는 주장에 대해 이른다. 둘째, 필자는 북한 의 연방제는 "절밀한 의회에서 연방제가 아니 다"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일부 정치화 교과서 가 연방제는 1국가론, 연방제는 2국가론에 기

통일문제, 전략적 도구 안된다

809호 명수당에 대한 반론

외대학보 800호에 실린 정낙근 선생의 기고 "연방제 통일방안 논쟁 이제, 그만"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필자는 인용했듯이 최근 한 나라당 수천 후보가 집권시 6-15 공동선언 제 2항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보수언론들도 대략적 6-15 공동선언 혼동기에 나섰다. 그렇기 남북관계 진전의 고비이다. 보 여온 히스테리틱 반응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소동이 특별한 세상사라는 이유는 없다. 이런 소동은 보수층의 불안정성을 자극하고 이들을 결집시켜 반사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정략적 계산의 일환일 뿐이다. 선연의 한 당사자인 북 한당수도 최근 노동신문 사설에서 남·북이 통일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당 정부와 한나라당이 선연 제정을 저지러 어정전적으로 해석해 왔고 이 있는 공방은 일관성있게 이어져 왔다. 필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 공감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주장이 갖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자 할 수 없다.

먼저 나는 현국에서 모든 형태의 통일방안 논의가 남북관계는 주장이 담고 있는 논리 비약에 반대한다. 남과 북이 대화하고 상호 관 신사에 대한 실질적 언어를 중대하게 나가는 과정은 통일방안 합의 과정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통일방안에 대 한 비타협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통일방안의 목표와 지향을 분명히 한다 는 점에서 다를 수 없는 과제이다.

다음은 필자가 연방제 통일방안을 비판하면 서 제시한 몇 가지 논점에 관한 반론이다.

첫째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방안"은 무엇보다 먼저 양측에 합의한 제도로 수립되어야 한 다. 필자는 필자의 주장은 실득적이 아니라 제 체통과 조건의 미비로 인하여 정작 통일국 가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망각 미루어야 한 다는 주장에 대해 이른다. 둘째, 필자는 북한 의 연방제는 "절밀한 의회에서 연방제가 아니 다"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일부 정치화 교과서 가 연방제는 1국가론, 연방제는 2국가론에 기

반한 것으로 사술하고 있음을 그 근거로 들었 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는 '1국가 2체제 2차 의정부'를 지향하므로, 필자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더라도 연방제가 아닌 연방제안이 분명하 다. 필자는 이어서 통일방안 논의의 핵심이 '제체'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제체'와 '국가'의 수순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혼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주 장이다. 셋째, 필자는 2개 체제의 공존에 바탕 을 둔 연방국가에 존재할 것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미국과 영연방의 실례를 들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예외로 판단국가(가) 아니므로 적 절한 경험적 사례라고 할 수 없다. 한 발 앞보 해 미국과 영연방의 사례를 받아들일지라도 이들 국가의 경험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재 현될 것이라는 식의 귀납논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 넷째, "조선도 하나의 체제일 때는 연 방국가로 존재한다. 소속 공화국들이 하나하 체제로부터 이탈하지 않음은 불확실하다"는 "문 제"는 필자의 체제에 대한 필자의 고정관념 을 용이하게 해 버린다. 구소련의 분리 독립 현안을 스웨덴식 사회주의가 실행에 올 랐던 난국한 민족문제 해결방안에서 찾는 설 명이 통설인 더 가까운 것이다. 다섯째, "북한 이 오로지 무력적 통일방안을 가지고 있 다"라는 주장은 개인적 신념에 불과하다. 이러 한 종류의 명제는 확증도 반증도 불가능하다 는 점에서 이해불가능하게 주장이 가능하다 크 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유독 '1국가 1체제' 안 민을 통일방안으로 상징하면서 제시한 근거들 은 빈약하다. 필자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 해 오히려 의회와 과반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통일문제는 목적이 아닌 전략적 도구로 삼아 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것에만 치열한 반동일 이 통일국의 의회를 쓰고 우리 내부의 분단을 심 화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김의연
(대학원 부총학생회장 · 정치외교학과 박사 2학기)

교내 식당, 정말 밥맛없어!

윤인배(윤) 교내 식당에서 밥을 먹은 지도 벌써 십년이 돼 갔다. 그 동안 내가 먹은 무 수한 음식들을 차례대로 떠올려 보자. 가장 많이 먹은 음식으로 닭볶음탕을 꼽을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닭볶음탕은 닭볶음탕 1위가 아 니라 분식이다. 라면의 맛은 보편적이고 이미 공 인되어 있다. (물론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점과 재료, 파와 같은 첨가물이 그 맛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위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것 저것 열심히 먹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 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거"라고 지칭하 고 싶다.

우리는 흔히 전이란 음식을 바라보면서 "그 게 다 그거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은 "너 이상 고를 여자가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다. 하나의 반찬과 하나의 음식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간격으로 우리의 기억에 매주를 잊 으려 하는 그 순간, 특유의 반찬과 똑같은 국 이 되어 우리 겉으로 돌아온다. 다양한 이름을 달고 나오지만 XXX볶음밥에서 XXX는 당근과 양파, 양배추라는 상수 재료들에 비해 특별하 낮은 비율로 들어간다. 가끔은 '죽이'라고 리기 보다는 '술이'라고 리는 표현이 적절할 때도 있다.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XXX볶음밥 은 밥과 당근, 양파, 양배추 주위에 XXX 특별 출연의 일일 연속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속극의 반란도 뻔한 스토리 전개와 같이 이 볶음밥의 맛은 뻔한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 람은 볶음밥, 한끼에 이따리 다들, 양식, 백반의 경우에도 밥과 볶음밥이 비슷하다.

기숙사의 경우, 특히 주말 식당은 그 잔날 나왔던 음식이 다시 나오고, 심지어 전날 후복 관에서 나왔던 음식이 다시 등장하기도 해서 사생활을 경악하게 한다.

왜 이런 밥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상식적 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표현해주기 때문이다. 나 는 '교내 식당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 로 어떻게 하면 음식의 맛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려고 한다.

교내 식당은 학교 안에 위치함으로써 강의와 강의 사이에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위치와 시간상의 이유로 대 다수의 학생들도 교내 식당을 사용한다. 이러

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교내 식당의 메뉴는 다 양해야 하며 영양가 있고, 맛과 좋은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지향할 일이다. 지금처럼 학교 식당에서의 메뉴가 그 범용만 다채로운 맛의 차이가 없으면 쉽게 싫증나 나 가고 결국 "학교 식당, 정말 밥맛 없어!"라 고 외치게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학교 식당의 음식은 맛이 다 특강 은 같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는 거의 표현을 빌리지 말자하면, 드러마 제 작의 재정상 비효율과 같이 한 주만 배급을 을 수 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교내 식당은 공공기관 내의 식당이라는 점과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사업체라는 두 가지 성 질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성질이 충돌하는 지 점에 바로 가격이다. 이 가격에서 재료와 조리 된 등이 선별되고, 마지막으로 음식의 맛이 결 정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가격책정에 있어서 는 공공 시설이라고 보다 한 가격,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더 비싼 가격이 요구된다. 그러 나 학교라는 기관의 성격상 가격인상이 어렵 고 기업은 운영되기 위해 이윤을 남겨야만 하 는 두 가지 상반되는 교내 식당의 성격이 충돌 하는 지점. 바로 여기서 음식의 맛이 사라지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나는 학생들의 동의 하에 가 격을 조금 올려달라고 줄이나 한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그해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학교교 과 외에는 신성한 이름으로 장사나, 이윤, 돈과 같은 세속의 가치로써 보아야 한다. '너 나한 음식을 위해 돈을 더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충해야 한다. 나는 맛 있고 질이 좋은다는 식사의 책임을 학교가 지 겠으면 하는 마음이다. 학교에서 식당의 운 영자들의 활발한 교섭을 통해 이 문제 해결 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학교는 이 외에도 학생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학교라 는 공간이 어떠한 가치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심히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최미라
(동유럽 · 폴란드 어 99)

생활 정보

팝니다 · 삽니다

0화공(교한동) 팝니다.
인천 · 프랑크푸르트 이코노미 왕복
아시아 항공
유치기간 3월말~10월 19일이 만기일.
가격 · 9만원.
· 연락처 010-716-1101 myko@hanmail.net

0비디오 파실분.
너무 오래 된 모뎀(부피가 지나치게 큰것)은 사 안함.
2.4GHz에도 내에 문제 없는 것이면 됨.
제품의 상태에 따라 5-10원 정도 생각함.
연락 바람.
· 연락처 midori@hush.ac.kr

0멕시코어를 팝니다.
구입가 3만원 / 판매가 2만원
가격은 절충 가능. 깨끗하고 음질도 좋음
캐시백 오프 목록이 다 있음.
· 연락처 016-665-6132

0중고 텔레비전 구함.
비디가 10년 미만인 더욱 좋음.
가격은 서로 절충 가능.
· 연락처 marie3@hanmail.net

아르바이트

0일본어 아르바이트
일본어로 주 2시간 아르바이트(프리타임)
가능해신분
1. 남자 30세 이하
2. 비타협수준 이거나 일본 4년이상 거주자
· 연락처 011-337-4487 gure@hanmail.net

0외국인 상태 도우미 영어 능통자 인턴거주자 및 통근 가능자
※회사명 : 유니스소프트 인턴동구 03V 및 에 솔루션즈 (현 출구)
근무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 담당자 · 김경숙(w@unisoft.co.kr)
· 연락처 02-429-0775
※모집대상 : 외국인 상태 도우미
· 자격 : 일본어(필수) / 영어(필수)
· 급여 : 월급(월급) 50만원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연령 : 20 ~ 30세
· 마다일 2명 ~ 3명

0말레이시아에서 강사 구함.
hyun@yoon.co.kr 말레이시아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분 필요 구함.
· 마다일 1명 ~ 2명까지
· 연락처 019-910-5441 hyun@yoon.co.kr

0모텔사무소 학생 구함.
· 근무기간 : 6월 중 2주만 날짜·6월 31일
·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월~금 주 5일 근무)
· 보수액 : 월 50만원
· 자격 : 영어(필수)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분 필요
· 근무시간 : 6월 24일 이전까지
· 근무장소 : 모텔사무소 사무장님들 내내 할 거구요. 이거만 정말 행복해요.
· 연락처 011-339-3233 담당자 · 이동경

0재미 국제 여성보조인 양성 전문가
시민방인 한국여성정책연구소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재미 국제 여성보조인 양성 전문가 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여성들의 진 출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국제의원의 정 책적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과정으로 여성 들을 대상으로 6월 19일~6월 30일까지 주간 진행됩니다.
(내용)
· 모집기간 : 2022년 6월 10일(월) ~ 6월 14일(금)
· 참가대상 : 정책분야에 관심있는 대학 재학생 이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로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여성
(비고)
· 모집인원 : 30명
· 참가비 : 5만원
· 교육기간 : 2022년 6월 19일(월) ~ 30일(월) 12일(월)
구입가 3만원 / 판매가 2만원
가격은 절충 가능. 깨끗하고 음질도 좋음
캐시백 오프 목록이 다 있음.
· 연락처 016-665-6132

0영어/일본어 아르바이트
일본어로 주 2시간 아르바이트(프리타임)
가능해신분
1. 남자 30세 이하
2. 비타협수준 이거나 일본 4년이상 거주자
· 연락처 011-337-4487 gure@hanmail.net

0외국인 상태 도우미 영어 능통자 인턴거주자 및 통근 가능자
※회사명 : 유니스소프트 인턴동구 03V 및 에 솔루션즈 (현 출구)
근무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 담당자 · 김경숙(w@unisoft.co.kr)
· 연락처 02-429-0775
※모집대상 : 외국인 상태 도우미
· 자격 : 일본어(필수) / 영어(필수)
· 급여 : 월급(월급) 50만원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연령 : 20 ~ 30세
· 마다일 2명 ~ 3명

0말레이시아에서 강사 구함.
hyun@yoon.co.kr 말레이시아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분 필요 구함.
· 마다일 1명 ~ 2명까지
· 연락처 019-910-5441 hyun@yoon.co.kr

0모텔사무소 학생 구함.
· 근무기간 : 6월 중 2주만 날짜·6월 31일
·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월~금 주 5일 근무)
· 보수액 : 월 50만원
· 자격 : 영어(필수)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분 필요
· 근무시간 : 6월 24일 이전까지
· 근무장소 : 모텔사무소 사무장님들 내내 할 거구요. 이거만 정말 행복해요.
· 연락처 011-339-3233 담당자 · 이동경

0외국인 상태 도우미 영어 능통자 인턴거주자 및 통근 가능자
※회사명 : 유니스소프트 인턴동구 03V 및 에 솔루션즈 (현 출구)
근무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 담당자 · 김경숙(w@unisoft.co.kr)
· 연락처 02-429-0775
※모집대상 : 외국인 상태 도우미
· 자격 : 일본어(필수) / 영어(필수)
· 급여 : 월급(월급) 50만원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연령 : 20 ~ 30세
· 마다일 2명 ~ 3명

총장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남학생 휴게실 만들어요.
· 남학생 일동

히딩크만큼만 하면 되는데
· 부은 남학생

월드컵 시청 기념으로 등록
금을 환불해 주세요.
· 오바맨

퇴임 후 존경받는 총장님
되길...
· 민

원칙! 손 많이 벌었다.
· 양동준

Give me my money back!
· oh no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인턴단장 마요.
· 인턴인

이벤트에 못하면 안되지?
· NRG

히딩크를 총장으로!
· 대륙구원회

총장님 왕산에도 좀 오시
하면?
· 왕산인

예수님 믿는 총장을 뽑아!
· 기독교장

H.U.F.S는 최고다. 이말을
듣게 노력하길...
· 왜대인

위대학보 809호 비평

노컷때

강의 계획서, 시기 아쉽다

이번 809호 위대학보에는 1학기 동안의 위대생활을 돌아보는 기사가 많이 실린 것 같다. 4. 5월 주제기획에서 보여주었던 '우리도 무슨 수인지 알고 싶다'와 '외대의 장 정제'와 '교과제'가 '이러나'는 2022년 1학기동안 위대학보에 실려 있다. 미대출판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과 우려를 담고 있는 위대학보에 실려 있다. 미대출판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과 우려를 담고 있는 위대학보에 실려 있다. 미대출판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과 우려를 담고 있는 위대학보에 실려 있다.

